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21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이란 협상 재개 여부 관망..미국증시 약세

- 미국증시 소폭 약세 마감..나스닥 14거래일만에 하락
- 휴전 종료 앞두고 미국-이란 협상 재개 여부 관망 분위기
- 케빈 워시 "연준 독립성, 스스로에 달려있어"

Summary

미국증시 하락: 다우 -0.01%, 나스닥 -0.26%

4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의 통행 전면 자유화를 선언한지 하루만에 해협 재봉쇄에 나섰고 국제유가도 반등했지만 미국과 이란 양측의 회담 재개 가능성은 살아있다는 낙관론도 여전해 낙폭은 제한적.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1% 하락한 49,442.56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24% 하락한 7,109.14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26% 하락한 24,404.39에 거래를 마감. 나스닥 지수는 이로써 14거래일만에 하락 전환. 다만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장 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는 강세로 0.58% 상승한 2,792.96에 마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7.95% 상승한 18.87에 마감. .

(다우 -0.01%, 나스닥 -0.26%, S&P500 -0.24%, 러셀2000 +0.58%)

휴전 종료 D-2..협상 재개 여부는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다며 협상은 2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늦게 파키스탄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해선 미군이 이란 해상에 대한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을 내세움. 이란이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선언했지만 주말 다시 봉쇄한 이유 역시 미군의 해상 봉쇄 지속이었음. 당초 현지시각 20일 오후쯤엔 양측의 2차 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으나 이 같은 양측의 신경전 속에 협상은 지연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낙관하나 결렬될 경우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하기도. 다만 그럼에도 로이터와 뉴욕포스트 등은 이란이 결국 21일 협상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를 파키스탄 관리를 인용해 내놓는 등 전반적으로는 양측이 최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할 것이라는 쪽으로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

케빈 워시 "연준 독립성은 스스로 세워야"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사전 발언을 공개. 그는 "연준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필수적이며 연준의 독립성은 대체로 연준에 달려있다"고 주장.

연준이 스스로 정당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통화정책 운영상 독립성을 특별히 위협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이는 연준에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힘. 워시 지명자의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는 미 동부 시각 21일 오전 10시 시작. 그는 지난 1월 30일 지명을 받았지만 법무부의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문제로 인준 절차가 지연돼 왔음.

특징종목

빅테크 대체로 약세..애플 1% ↑

거대 기술 기업들은 대체로 약세. 마이크로소프트(-1.12%), 브로드컴(-1.70%), 아마존 닷컴(-0.91%), 테슬라(-2.03%), 구글 알파벳(-1.25%), 메타 플랫폼스(-2.56%), 엔비디아(+0.19%), 애플(+1.04%).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아마존닷컴(-0.91%)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관련 법원 문서에서 아마존이 리바이스 등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공급업체들에 접촉해 경쟁사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을 조정하라고 권유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캘리포니아 법원은 오는 7월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를 열 계획. 한편 아마존은 앤트로픽에 향후 몇 년간 최대 200억 달러까지 추가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 2% 이상 상승.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테슬라(-2.03%) 고객들이 자율주행 기능 과장 홍보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 저널은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사업을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제시해왔으며 이는 높은 기업 가치의 근거로 작용해왔지만 실제 기술 구현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도 하드웨어 한계와 업그레이드 비용 문제를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

애플(+1.04%)은 이달 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목표주가를 소폭 상향한 가운데 이틀 연속 강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아이폰 충성 고객을 기반으로 맥북 네오와 같은 혁신 상품을 출시한 것이 긍정적이라며 우호적인 환율 움직임과 서비스 분야의 두 자릿수 매출 증가도 기대 요인이라고 평가. 한편 애플은 정규장 마감 이후 팀 쿡 CEO의 사임 계획을 발표. 애플은 팀 쿡 CEO가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게 되며, CEO 자리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인 존 터너스가 맡게 된다고 알림. 존 터너스는 이전부터 팀 쿡 이후 애플을 이끌 강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로 아이폰 12시리즈부터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설계를 총괄한 인물. 특히 애플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칩 교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인텔 칩을 쓰던 애플은 터너스의 주도로 자체 설계 칩 M1, M2 등으로 갈아타는데 성공함. 이번 인사는 팀 쿡이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2011년 CEO에 오른 이후 애플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CEO 교체로 존 터너스는 애플의 여덟번째 CEO가 될 예정. 팀 쿡은 약 15년간의 CEO 재임 기간 동안 애플 워치와 에어팟, 그리고 가상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등을 출시하며 애플의 웨어러블 기술 진보를 이끌었음. 팀 쿡이 CEO로 취임한 이후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24배 증가해 현재 시가총액은 4조 달러에 이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큰 움직임 없이 소폭 하락권에 머무름.

반도체주 종목별 혼조- 소프트웨어주 대체로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장 중 하락권에 머물다 0.45% 소폭 상승권으로 돌아서 마감. 엔비디아(+0.19%), 텍사스 인스트루먼트(+1.69%), 애널로그 디바이시스(+2.58%), 퀄컴(+0.97%), 온 세미컨덕터(+3.07%), 웨스턴 디지털(+0.43%) 등이 1-2%대 상승세로 마감. 다만 브로드컴(-1.7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46%), AMD(-1.24%), 인텔(-4.07%), 램 리서치(-1.66%), 샌디스크(-0.86%) 등은 약세 마감.

특히 인텔의 낙폭이 4%대로 유독 두드러졌는데 인텔은 최근 한 달 사이 40% 이상 급등했던 바 있음. 모건스탠리는 인텔의 목표주가를 기존 41달러에서 56달러로 상향했지만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투자자에게 보다 나은 위험-수익 비율을 제공하고 있다며 투자의견은 중립으로 설정.

골드만삭스는 이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46%)가 전쟁 발발 이후 전체 S&P500 EPS 전망치 수정분의 51%를 단독으로 차지했다고 밝힘. 컨센서스 기준 2026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EPS 성장률 전망치는 무려 605%에 달하며, 2월 27일 이후 EPS 전망치는 93% 상향 조정됐음.

SoC(시스템 온 칩) 솔루션 기업인 맥스리니어(+20.78%)는 20% 이상 급등. 최근 한 달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맥스리니어는 이번주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

크리도 테크놀로지 그룹(+8.61%),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5.83%)도 오름폭이 컸음. 마블 테크놀로지는 구글과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구글이 인공지능 모델 실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블과 협력해 두 종류의 새로운 AI 칩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 구글은 그간 브로드컴과 주로 협력해왔으며 이번 마블과의 협의 소식은 브로드컴이 구글과 TPU 및 네트워킹 부품을 2031년까지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 직후 나온 것. 이번 마블과의 새로운 칩 개발 협력은 브로드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 파트너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석됐지만 브로드컴(-1.70%) 주가는 약세 마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1.69%)와의 협력을 통해 센서 통합을 간소화하고 실시간 엣지 AI 시스템 확장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래티스 세미컨덕터(+1.51%)도 강세.

기술주 내 순환매 움직임 속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체로 상승. 오라클(+1.44%), 팔로알토 네트웍스(+1.02%), 크라우드스트라이크(+2.17%), 세일스포스(+2.27%), 서비스나우(+3.17%), 인튜이트(+2.94%), 도큐사인(+1.31%), 스노우플레이크(+4.49%). 다만 팔란티어 테크(-0.34%)는 지난주 닷새 연속 이어진 상승세를 접고 차익 매물에 소폭 약세.

국제유가 급등: 에너지·화학↑, 항공·크루즈↓

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 화학주는 하락하고 항공, 크루즈주는 상승했던 전일과 정확히 반

대된 움직임.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전면 개방 선언 하루만에 다시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에 APA(+0.63%), 데번 에너지(+1.61%), 코노코필립스(+0.35%), 옥시덴털 페트롤리엄(+1.28%), 엑슨 모빌(+0.85%) 등의 에너지주와 다우(+3.29%), 인트레피드 포타시(+1.68%), 라이온델바젤 인더스트리스(+3.49%), CF 인더스트리스(+2.89%) 등 화학/비료주가 상승. 반면 비용 상승 부담과 수요 위축 우려가 있는 델타 에어라인스(-0.71%),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2.84%),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2.06%), 아메리칸 에어라인스(-4.23%) 등의 항공, 카니발(-0.72%),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홀딩스(-3.48%) 등의 크루즈주는 약세.

이외 개별 특징주

블랙베리(+13.17%)는 로보틱스와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 엔비디아(+0.19%)와의 확장된 파트너십을 발표한 가운데 급등.

단열재 설치 및 유통업체 탑빌드(+19.38%)는 QXO가 회사를 17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한 뒤 급등. QXO는 이번 인수 통해 더 높은 마진 구조 갖춘 사업을 구축하고 즉각적인 실적 개선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혀.

난치성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위한 환각제 기반 신약을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 컴퍼스 패스웨이스(+42.04%)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각제 기반 치료제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급등.

바이오테크 기업 바이오젠(+3.38%)은 TJ바이오파마에 8억 5천만달러 지불하고 IgA 신병증과 같은 면역 관련 질환 치료제 펠자르타맙의 중국 내 독점 판매권 확보하기로 합의한 후 상승.

위성 통신 기업 AST 스페이스모바일(-5.30%)은 주말 발사된 위성이 잘못된 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하락. 회사는 해당 위성 비용이 보험으로 보전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 1-2 개월마다 궤도 발사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해 7만 5천달러 선을 지지하면서 관련주도 강세. 스트래티지(+2.58%), 코인베이스 글로벌(+2.57%), 로빈훗 마케츠(+0.58%).

양자컴퓨팅 대장주 아이온큐(+4.84%)는 투자은행 노스랜드가 '시장수익률 상회' 의견과 목표가 55달러로 분석을 시작한 가운데 강세. 노스랜드는 양자컴퓨팅 업종의 상업적 변곡점이 이미 도래했다며 시장 규모가 최대 2,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전망. 노스랜드는 퀀텀 컴퓨팅(+2.72%)과 아이온큐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전동 공구 제조업체 스탠리 블랙앤데커(+5.30%)는 최근 변경된 232조 관세가 연간 실적 전망에 중대한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 밝힌 후 상승. 백악관에 따르면 232조 관세는 알루미늄, 철강 및 특정 관련 제품에 5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특정 구리 및 파생 제품에는 25%의 세율을 적용.

전 에너지 장관 릭 페리가 공동 설립한 에너지 인프라 개발 업체 페르미(-17.56%)는 최고재무책임자 사임 소식에 급락. 페르미는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을 주로 진행 중.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보합권 혼조

미 국채 금리는 대체로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 양상.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양측의 공격적인 수사도 멈추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2차 존전 협상이 결국은 곧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6bp 상승한 3.716%, 10년물 금리는 0.5bp 상승한 4.249%,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0.3bp 하락한 4.881%를 기록함.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 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55% 내외로. 금리가 25bp 이상 인하될 가능성을 40% 중반대로 반영함.

달러 이틀째 약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전 거래일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협상 재개와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휴전 연장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말했지만 한편 이란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일축하며 “우리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뉴욕포스트와 AP 통신, 로이터 등은 이란이 이번주 미국과 2차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하기도.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98.062로 0.133% 하락. 유로-달러 환율은 0.176%, 파운드-달러 환율은 0.096% 상승.

달러-원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1,477.20원 대비 4.40원 이상 하락한 1,472.80원에 거래를 마침.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6.25원 하락한 1,469.60원 기록.

국제유가 급등..WTI 89달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을 선언한지 하루만에 미국의 해상 봉쇄 지속 등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 이에 아시아장에서 91달러를 넘기기도 했던 WTI는 다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다는 낙관론을 반영해 오름폭을 축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6.87% 상승한 배럴당 89.61달러에 마감.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2.5% 상승.

금은 달러 약세와 국채금리의 제한적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을 부담으로 반영해 하락. 은과 플래티넘 등 여타 귀금속도 2% 이상 하락했으며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도 대체로 약세.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